

청렴사회 구현 ‘맞손’

전북교육청, 국민권익위와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콘텐츠 확산·부패취약분야 개선·부정수급 예방 등 중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손을 맞잡았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교육현장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북학생회의 의원 6명과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4명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정책참여 기구며, 전북학생회의 역시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학생의 결 기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초·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이 열렸다.

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렴교육 콘텐츠 확산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부패취약 분야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청렴문화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청소년 시기부터 청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청렴 함께 학교 운영,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청렴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7일 우석대학교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개교 46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석의 역사를 새롭게”

우석대, 개교 46주년 기념식

“우석의 역사를 새롭게 새겨나가겠습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7일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개교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학처장, 교직원,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 교직원 근속상 수여, 이사장상 및 총장상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학처장, 교직원,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 교직원 근속상 수여, 이사장상 및 총장상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현영(기획팀)·장은(산학협력실) 직원은 이사장상을, 부유택(입학지원센터)·노원빈(글로벌교육지원센터)·김태경(입학관리팀) 직원은

은 총장상을 받았다. 또한, 강푸름(간호학과) 교수 외 12명이 강의우수 교원으로 선정돼 총장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신재동(군사학과 4년) 학생 외 7명이 우석인재상을, 류후이(글로벌외식경영학과 박사과정 4차수) 대학원생 외 1명이 우석글로벌상을 받았다.

서창훈 이사장은 “해가 갈수록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대학은 이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미래형 융합 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사회 설계를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준 총장은 “최근 RISE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으로 대학의 재정 기반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권익위와 청렴교육·권익보호 강화 협약

학생·교직원 청렴교육 확대

정규 교과과정에 청렴교육 개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손을 맞잡았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교육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생 청렴교육 확대를 비롯해 교직원 청렴 역량 향상, 정규 교과과정 내 청렴교육 개설, 교육 상담 및 권익 보호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대는 그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교내에 청렴 음부즈민을 운영,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나섰다.



7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청렴교육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식이 열렸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특강 및 청렴실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최근엔 청렴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인문학과 융합된 청렴교육을 실시, 큰 호응을 얻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지향하는 ‘청렴한 대학’ 실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교육과 문화 전반

에 걸쳐 청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자 미래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라며 “전북대와의 협력을 통해 청렴교육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책 절실”

국주영은 도의원,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은 의원(전주12)은 7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19개 원(원아수: 1,612명/교원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체 유치원 400개 원 중 석면 유치원은 19개 원(4.8%)이며, 석면을 보유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립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철거 지원 예산은 ‘0원’으로 철거해야 할 면적만도 9,021㎡에 해당한다.

시군별로는 전주 11곳(4,657㎡), 익산 5곳(3,108㎡), 김제 2곳(886㎡), 군산 1곳(370㎡)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와 교원의 신체 안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유치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교육환경’이다”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휴원·폐원·개원이 잦은 유치원의 특성을 들어 사립유치원 석면 철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사립유치원이 모두 사인(私人)형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 앞장서야 할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더 이상 미흡한 법을 핑계 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북교육청의 전향적 검토와 의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지원한 공립유치원의 석면철거 예산은 1㎡당 평균 9만 2,000원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도 도내에 남은 사립유치원 석면 전체 철거 예산을 산출해 보면 약 9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장애인 합동결혼식서 재능기부 봉사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봉사동아리 ‘미용천사들’이 최근 아름다운재단 벤처웨딩홀에서 열린 ‘제24회 꿈드림 장애인합회 합동결혼식’에 참여한 도내 장애인 부부 11쌍의 신랑·신부를 위해 웨딩 메이크업, 헤어 연출, 네일아트 재능기부를 펼쳤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미얀마 출신 유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로, 이날 행사에는 2학년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겸임교원, 이효숙 지도교수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특히 미용건강과는 2002년 학과 개설 이래 지역 주민을 위한 미용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미용천사들’의 봉사활동도 2018년 창단 이후 매년 확대되고 있다.

미얀마 출신 재학생 생문벤은 “우리가 배운 미용 기술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정말 뿌듯하다”며 “언젠가 미얀마에서도 이런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디지털 건강문해력, 제2형 당뇨 앓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

전북대 장유라 박사과정생, 국제 학술지에 연구 발표

전북대학교 장유라 박사과정생(간호대학, 지도교수 양영란)이 디지털 헬스 정보 활용 능력인 ‘e-헬스 리터러시(e-Health Literacy, 이하 e-HL)’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진단받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e-HL과 당뇨병 관리에 대한 자신감(당뇨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자기 관리 행동(self-care behavior) 등이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을 높이는 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e-HL 수준이 높을수록 당뇨병 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 행동이 높았다. 즉, e-HL이 뛰어난 환자일수록 본인의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 관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장유라 박사과정생은 “그간의 당뇨병 연구는 대부분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 자가 효능감과 자기관리 행동의 병렬 매개효과”라는 주제의 논문을 세계적 권위의 SSCI급 간호학 학술지인 ‘Applied Nursing Research’(IF:2.7, 간호학 분야 JCR Q1 등급)에 게재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제2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특별장학생’ 선발

국립군산대학교 국제물류학과는 7일 ‘제2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특별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제공하는 특별장학금으로, △2학년 2명 △3학년 1명 △4학년 2명 등 총 5명의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됐다.

특별장학금은 오는 2027학년도 1학기까지 매 학기 지급될 예정으로, 수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과 학업 지속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고민규(국제물류학과 4학년)씨는 “장학금 덕분에 학업과 진로 준비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남은 대학 생활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교육청,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교육 강사단 인력풀’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학부모 대상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5개 분야 42명 규모였던 강사단을 10개 분야 8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강사단은 △자녀이해(감정코칭, 심리상담 등) △미래교육·에듀테크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학력신장(자기주도학습, 학습코칭) △독서·인문 △진로진학 △학부모 리더십 △교육활동보호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단 신규 인력을 선발, 기존 강사들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전북교육인권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등 유관 부서와 협력해 우수 강사 인력을 연계함으로써 강사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강화했다.

특히 강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와의 효과적인 소통 기법 △강의 기획력 향상 △최신 교육 동향 등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체계적으로 역량을 갖춘 강사진과의 촘촘한 교육협력 기반을 구축해 학부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교육공동체를 더욱 튼튼히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5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변화하는 대학 입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일반계 고교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 중 진학지도 경험이 부족하거나 최신의 대입 정보를 통해 대입 전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교사를 위한 ‘기본반’과, 풍부한 진학지도 경험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제공하는 ‘심화반’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대학 입학 사정관 등이 참여한다.

기본반에서는 △신규 진학교사를 위한 진학지도 매뉴얼 △지역인재 전형과 수능 전형을 고려한 진학지도 △대입 전형별 대학의 평가 방법의 이해 △입시변화를 고려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심화반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지도 △대입 상담 및 진로진학지도 사례연구 △수능 전형의 이해와 지도 △2028 대입을 위한 단위 학교에서의 준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장은성 기자